

2011. 5. 13(금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11년 5월 12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보도자료



담당부서 : 주택본부 건축기획과

건축기획과장	권 창 주	3707-8250
--------	-------	-----------

건축설팀장	정 남 기	3707-8265
-------	-------	-----------

사진없음 ■ 사진있음 □ 매수 : 4매

담당자	김 상 곤	3707-8274
-----	-------	-----------

친환경·에너지절약형 건축물로 5,328억 원 자원 절감

- 서울시, 「친환경 그린디자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」 시행 추진
- '07년부터 건축물심의시 친환경저에너지 건축물설계가이드라인을 적용
 - 벽체단열 강화, 복층로이유리창 사용 등으로 성능중심의 친환경저에너지 설계
 - 취득세·등록세 감면,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
 - 대기전력 자동차단콘센트 설치, 숨은 전력손실 찾기 등으로 전기소비량 줄여
- 총230개 건축물에 등급 지정해 온실가스 배출량 838,000Tco₂ 감축
 - 소나무 755만 그루 식재, 서울숲의 18배 면적 공원 조성, 5,328억원 자원 절감 효과
- 건축물 에너지절약 정책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2030 그린디자인 서울 만들 것

□ 서울시가 「친환경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」을 3년간 시행한 결과, 소나무 755만 그루 식재효과, 서울숲(115만 6천㎡, 41만 그루)의 18배 공원 조성효과, 5,328억원의 자원 절감 등의 성과를 내며 서울의 공기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'07년 8월부터 '11년 3월까지 건축심의를 마친 230건에 대한 실행성과 분석 결과를 12일(목) 밝혔다.
- 「친환경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」이란, 건축 계획 단계부터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해,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서울시의 친환경 정책으로 '07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.
- 현재 서울시 에너지소비량의 60%를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·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건물부문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에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게 됐다고 시는 밝혔다.

<총230개 건축물에 등급 지정해 온실가스 배출량 838,000Tco₂ 감축>

- 서울시는 분석 결과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230건 중 에너지효율1등급이 6건, 2등급이 224건, 친환경건축물 인증 최우수가 9건, 우수가 221건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.
- 또, 에너지효율 최저등급인 5등급에 비해 에너지소비량을 273,197 TOE 절감, 이는 탄소배출량으로는 838,440TCO₂ 를 저감시켜 서울숲 공원에서 탄소를 저감하는 량의 18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.
- 이는 경유 150만 드럼에 해당하는 273,000Toe의 에너지 절감량이다.

- 서울시는 리모델링을 포함한 신축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강화해 ▲성능중심의 친환경·저에너지 설계 ▲대기전력 제로화 설계 ▲숨어있는 전력손실 찾기 등의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적용해 건설하도록 유도했다.

<벽체단열 강화 복층로이유리창 사용 등으로 성능중심의 친환경저에너지 설계>

- 먼저, 서울시는 건축물의 외벽 및 유리창문을 통하여 실내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량을 줄이기 위해서 벽체단열을 법적 최소 설계기준 보다 강화하고, 유리창은 열차단성능이 우수한 복층로이유리창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.
- 건물외피의 단열 성능 향상, 복층로이유리 창호 사용, 친환경 건축물 우수등급이상 인증 권장, 에너지효율등급인증 2등급이상 권장, 창호면적 제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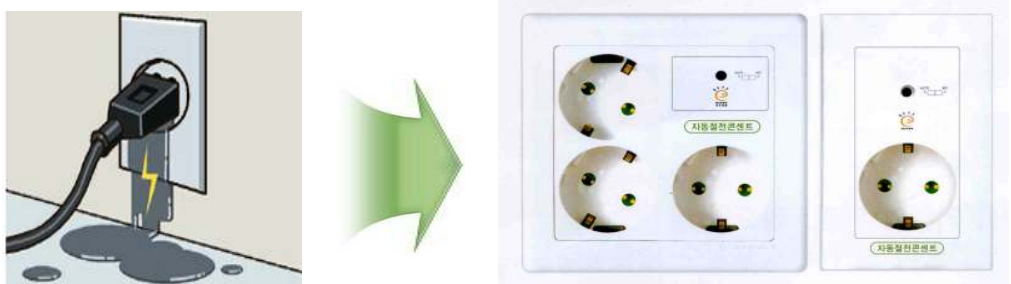
<취득세·등록세 감면,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>

- 또한, 서울시는 저에너지소비형 건축물에 대해 신축 건물의 취득세·등록세 감면(5~15%),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(5% 이내),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지원(최우수 100%, 우수 50% 지급)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.

<대기전력 자동차단콘센트 설치, 숨은 전력손실 찾기 등으로 전기소비량 줄여>

- 이에 더해 대기전력 자동차단콘센트를 설치해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비되는 전기(대기전력)를 차단해 전기소비량을 줄이도록 했다.

- 대기전력 자동차단콘센트 설치 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약11%를 절약할 수 있으며, 45평 이상 아파트에 적용시, 최대 월 3만원의 절약 효과를 낸다.



- 뿐만 아니라 변압기의 경우, 건축물 용도별로 부하율을 적용해 변압기 자체 소비전력을 줄이도록 했다.

- 건축물 용도별 적용 부하율

용도	공동주택	업무시설	판매시설	의료시설	공공건물
부하율(%)	30이하	40이하	40이하	50이하	30이하

- 1,000 kVA 경우 대변압기 1대의 부하율에 따른 전력손실량 기준

부하율(%)	30이하	40이하	50이하	60이하	80이하
전력손실(W)	1,576	2,293	3,216	4,188	6,322

- 한편, 서울시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 40% 감축, 2000년 대비 에너지이용량 20% 절감 목표인 「2030 그린디자인 서울」 목표 달성을 위해,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 수준을 향상·보완해 나가고, 친환경·에너지절약 방안을 연구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